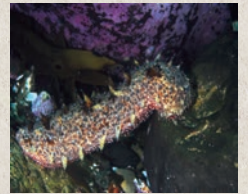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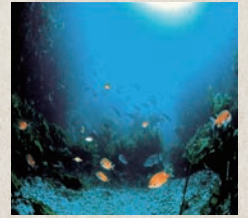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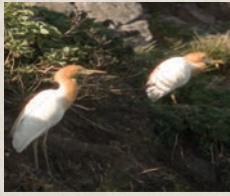




독도의 자원



독도의
자원



독도의 자원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된 독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동·식물, 해양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동·식물

독도는 새들이 살기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새들의 번식지이며 중간 휴식지이다. 지금까지 관찰된 새는 꿩이갈매기를 비롯하여 멸종 위기에 놓인 매와 물수리를 포함하여 22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독도는 바람이 세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다. 또한 비가 내리더라도 곧바로 흘러내려 늘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독도는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현재 50~6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다. 해국을 비롯하여 왕호장근, 제비쑥, 섬장대, 꿩이밥, 강아지풀, 질경이 등의 풀과 곰솔,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동백 등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해양생물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온 북한 한류와 제주도 부근에서 동해로 북상하는 동한 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리고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독도 주변은 많은 물고기가 모여드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오징어, 대구, 상어, 연어 등이 살고 있고, 바위마다 미역, 다시마, 파래등의 해조류가 살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전복, 소라, 홍합, 새우, 홍게 등이 살고 있다.



울릉군 제공

괭이갈매기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황로



울릉군 제공

왕해국과 얼굴바위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개갯냉이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동의나물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땅채송화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

섬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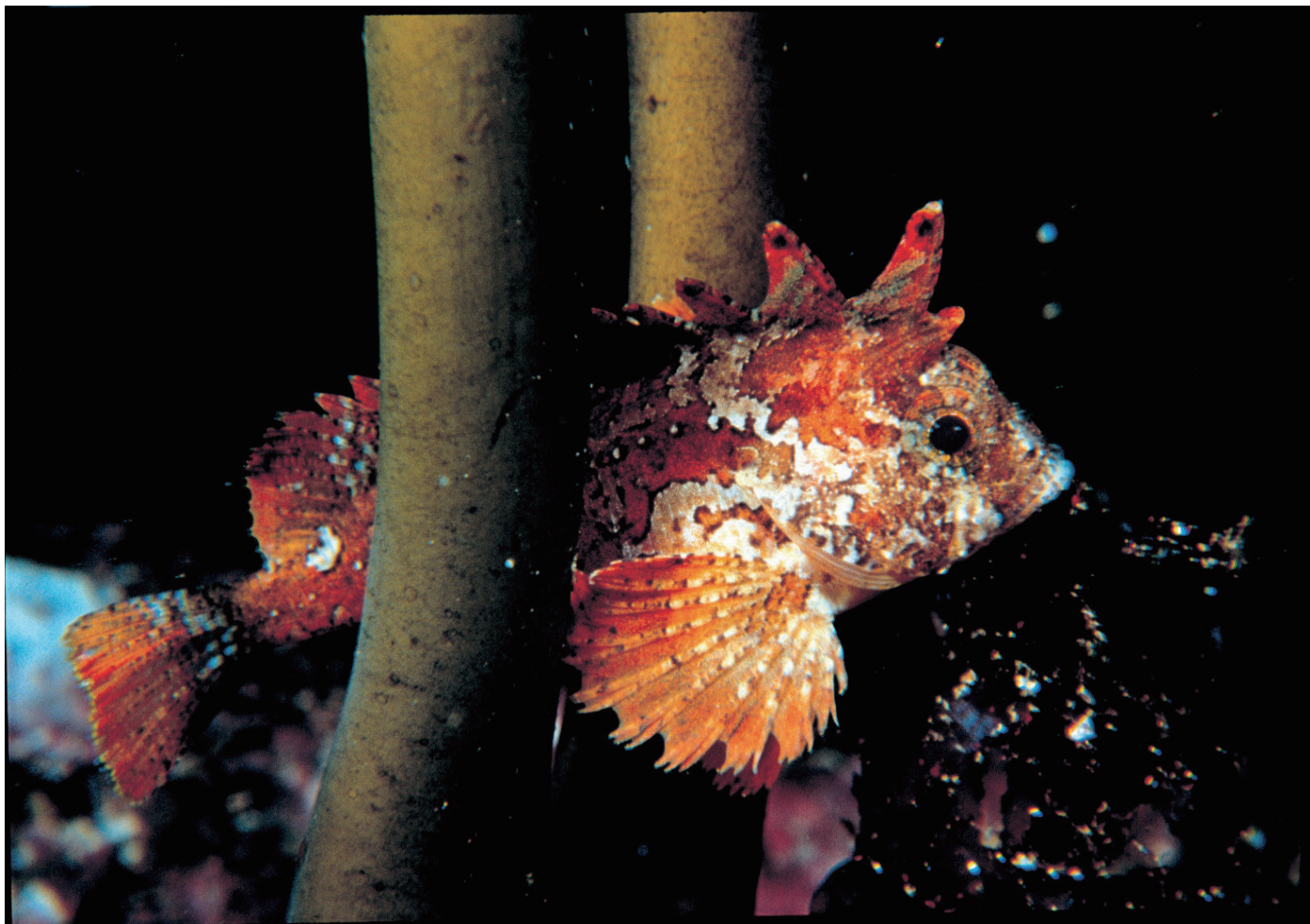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가제바위 주변의 물고기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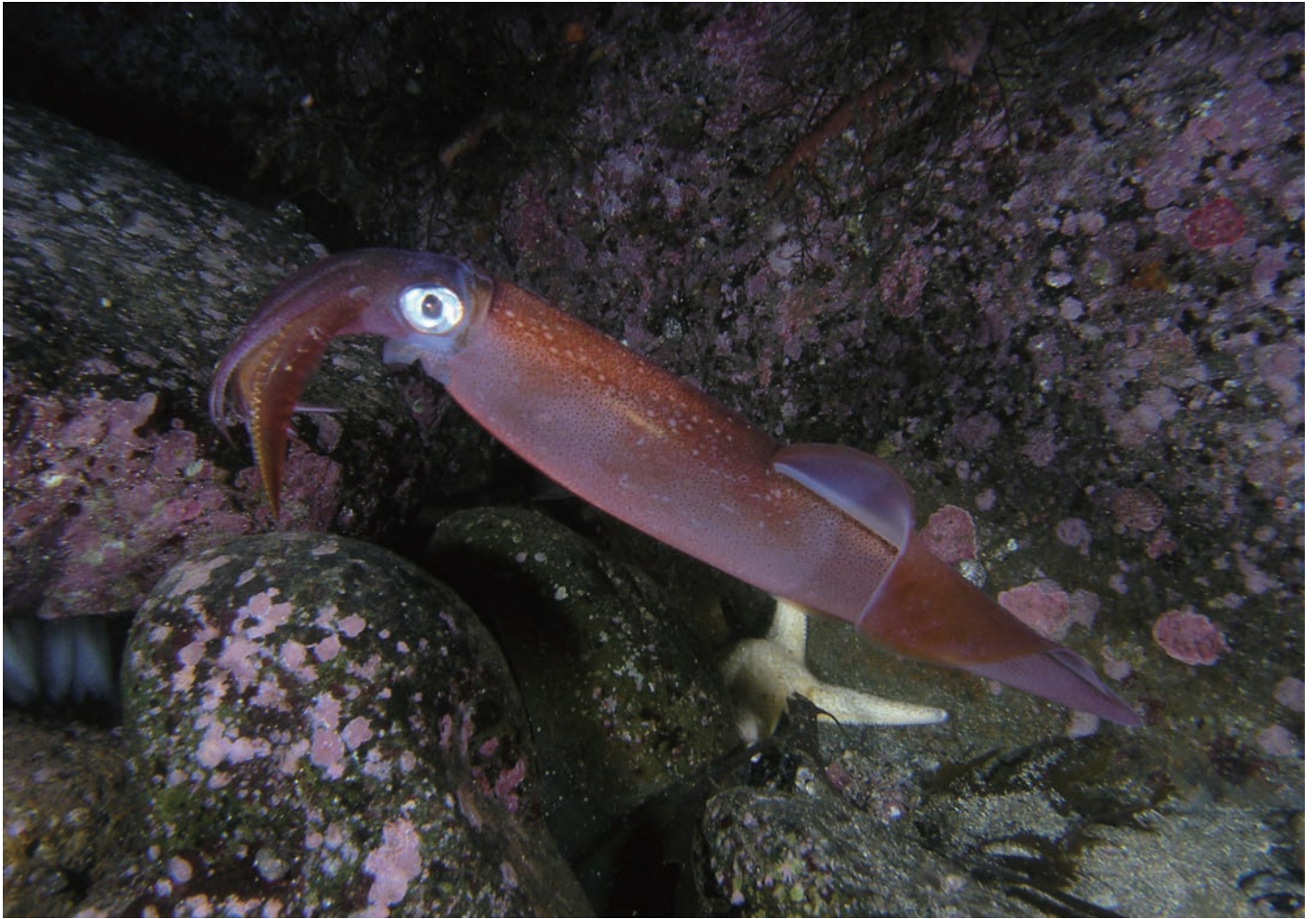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돌돔, 놀래기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미역치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살오징어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주홍토끼고둥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청황베도라치 수컷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가죽해면말미잘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대항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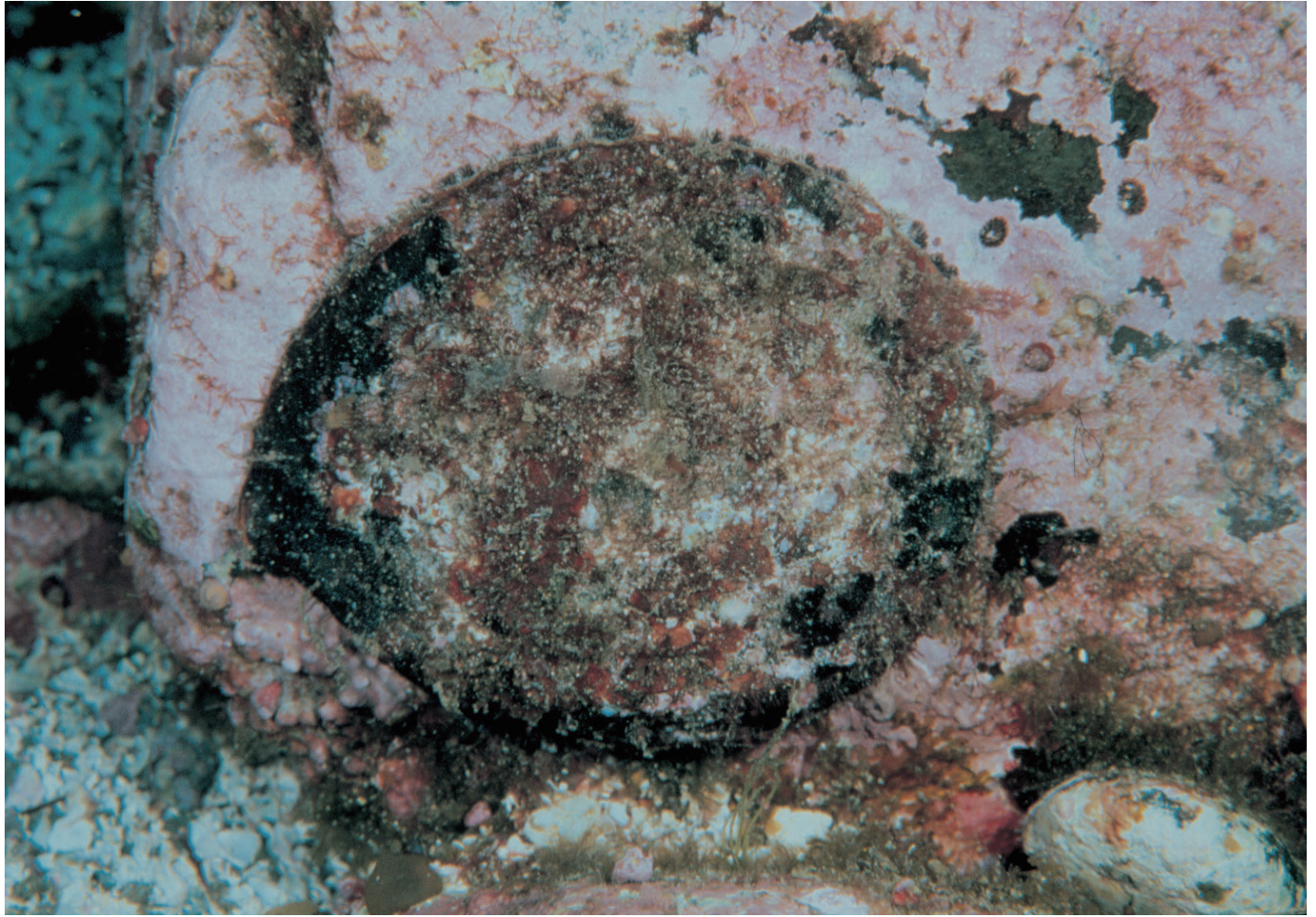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돌기해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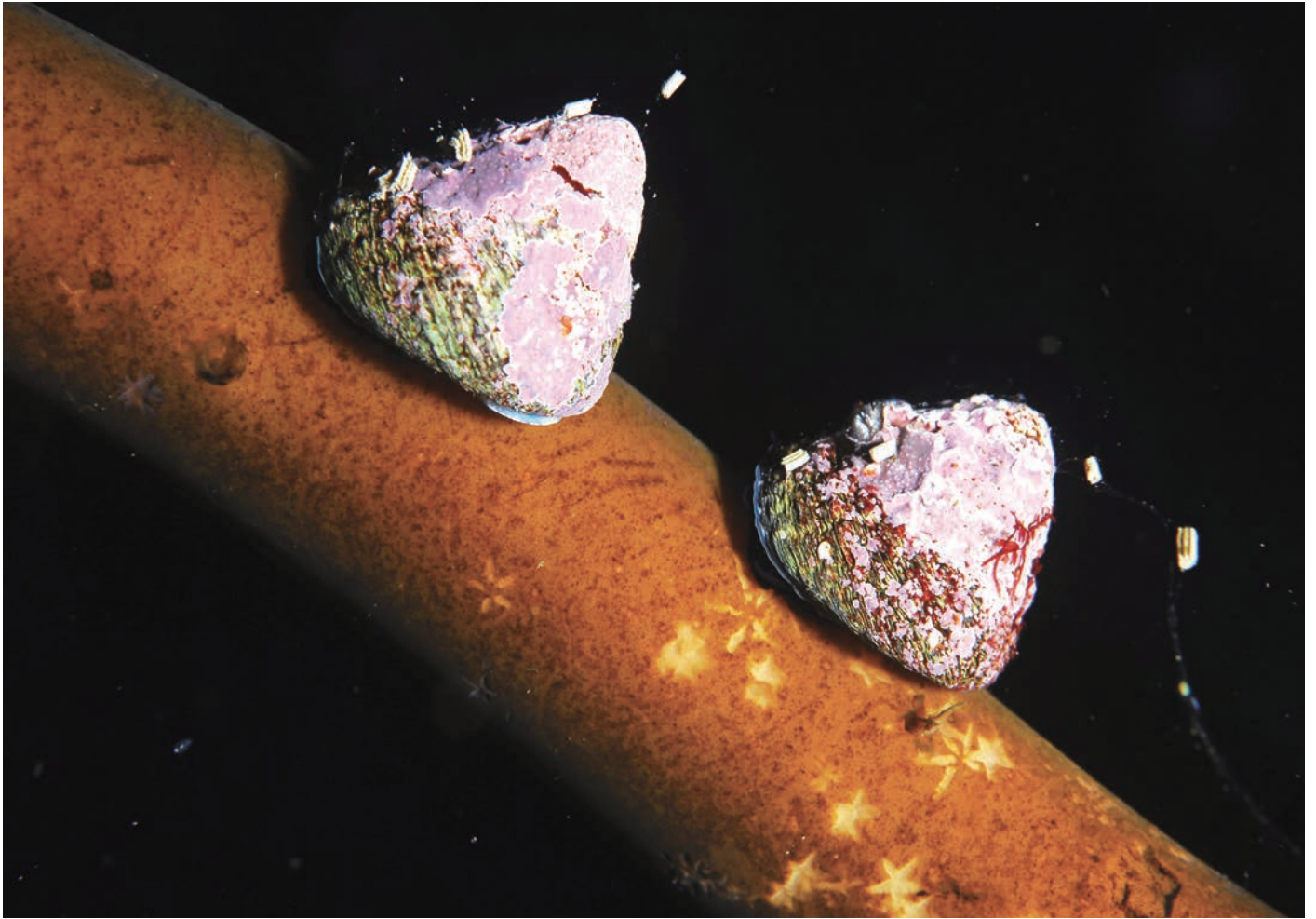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둥근성게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말전복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밤고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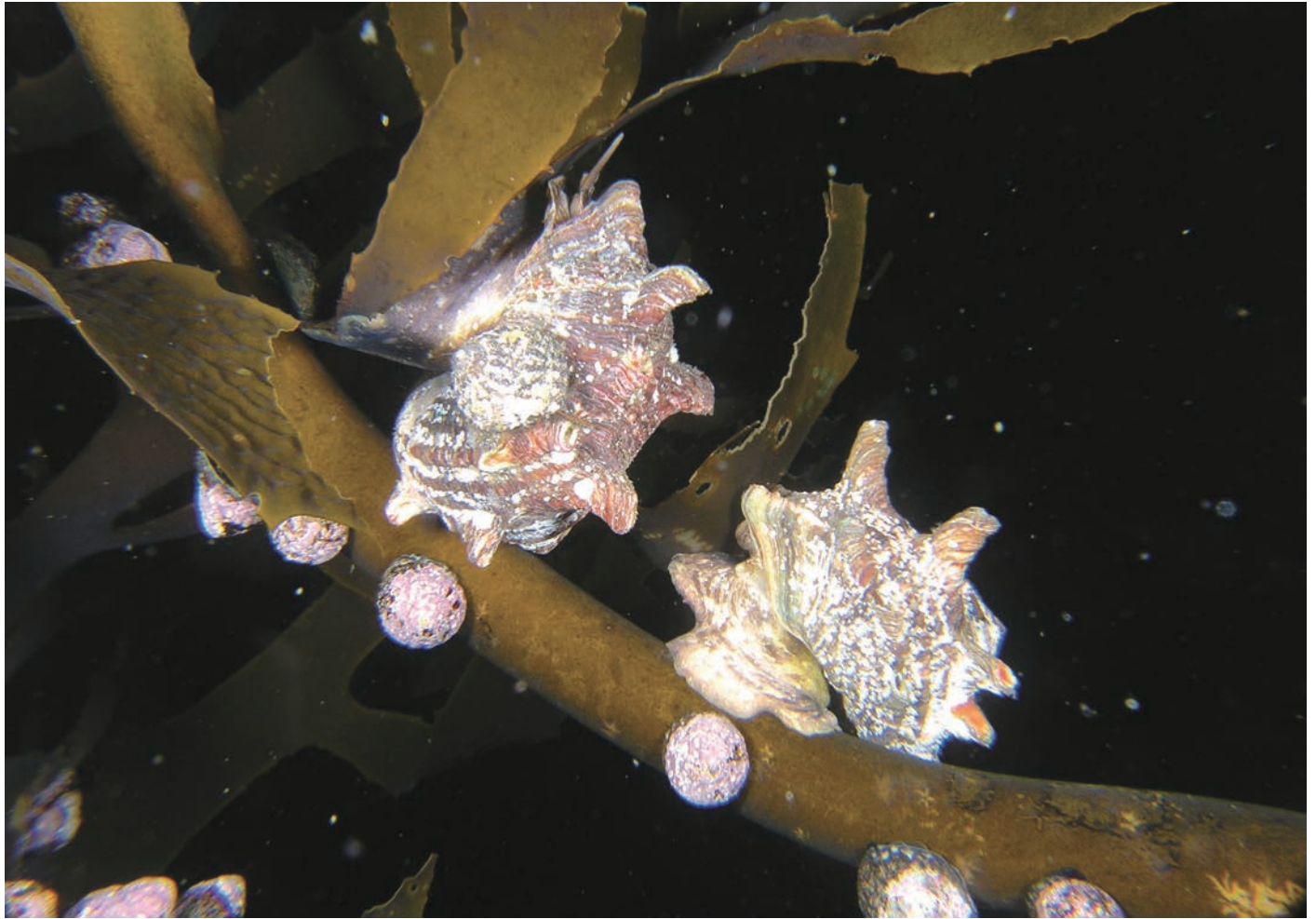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홍합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붉은눈자루참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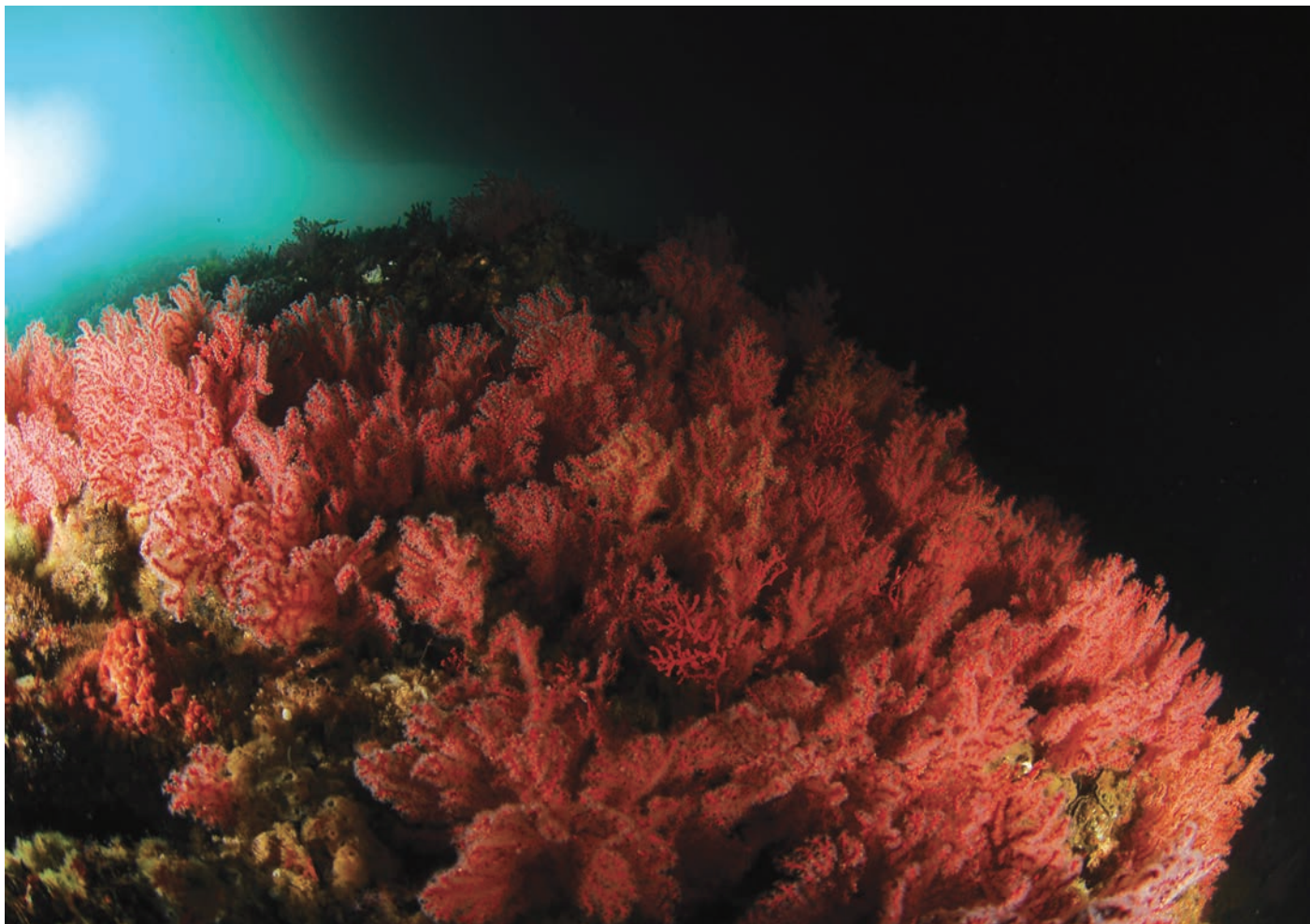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소라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예쁜이갯민숭이



한국해양연구원 제공

부채꼴산호 군락